



(주)한국필름 · 일본 토레이 MOU 체결 판재뿐 아니라 관련 재료 · 기술 독점 공급

(주)한국필름(대표이사 차의송)은 지난 11월 16일 오전 11시 일본 토레이와 무습수판재 및 관련기술 국내 독점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한국필름 차의송 대표, 김시만 전무이사, 방주현 이사를 비롯해 일본토레이의 하야시 미쯔노리 매니저, 이승용씨, 토레이인터내셔널코리아 김주찬씨 등이 참가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한국필름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국내에 다양한 인쇄 기자재를 공급해 오던 한국필름의 노하우와 토레이의 세계적인 무습수 인쇄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무습수 인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계약체결에 앞서 차의송 대표는 “인쇄는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여러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객들은 새로운 인쇄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검토했던 토레이의 무습수 인쇄기술을 국내에 독점 공급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인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건강한 인쇄문화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 토레이 해외 영업팀장인 하야시 미쯔노리씨는 “토레이는 친환경인쇄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1970년대부터 무습수 인쇄판을 생산하고 있다. 당시 유럽을 선두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무습수 인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친환경인쇄와 무습수 인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일본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에 무습수 인쇄가 어려운 인쇄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한국에 무습수 인쇄를 확대시키기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필름은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한국필름의 임직원은 “이번 토레이와 한국필름의 조인식은 단순히 무습수 인쇄 판재를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무습수 인쇄를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쇄사를 운영하는 모든 인쇄인에게 친환경인쇄뿐 아니라 높은 생산성과 품질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인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습수 인쇄는 토레이 전용판재를 일반 써멀CTP에서 노광한 후 전용 세척기로 판을 세척한 후에 인쇄하는 것으로, 냉각장치가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인쇄기에서 무습수 인쇄를 할 수 있다.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쇄 중 별도의 밸런스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 농도와 걸러가 항상 일정하다. 또한 물의 역할을 실리콘이 대신하기 때문에 망퍼짐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 선명하고 색조 대비를 명확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미세한 글자나 선화가 필요한 정밀한 인쇄 제품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